

# 광주 문화기관 수장 후임에 쏠린 눈

### 시립미술관장 임기 만료 따라 공모 진행...20일 최종 발표 예정 비엔날레 대표, 후임자 없어 대행체제...문화계 "전문성 갖춰야"

광주시립미술관장,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이사 등 지역 문화기관 수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향후 후임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 임기가 오는 19일 만료됨에 따라 새 관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12월 말일로 광주비엔날레재단 박양우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돼 대표 이사 자리는 공석 중이다. 현재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선임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대표 문화기관인 시립미술관, 비엔날레재단 수장은 단순히 상징적인 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시립미술관장은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회를 비롯해 국내외 교류 등을 관장하며 신인 발굴과 창작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광주정신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하기 위해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최초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대표이사는 세계 트렌드를 읽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현해야 할 역할이 주어진다.

◇시립미술관장 오는 20일께 최종 발표

7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김준기 관장 임기는 오는 19일 끝난다. 김 관장은 지난 2023년 1월 20일 임기 2년의 시립미술관장에 취임했다.

새롭게 선임될 제13대 관장 임기는 2년이며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이다. 공모 접수는 7일 마무리됐으며 이후 1차 서류 전형은 거쳐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20일 발표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7일 오후 1시 기준 모두 5명 후보자가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들의 구체적인 면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다수 지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미술계는 2년 만에 관장이 교체되는 만큼 새 수장은 새로운 미술 트렌드를 읽고 시민이 원하는 전시를 펼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김준기 관장과 이전 전승보 관장이 지역 출신이 아니었던 탓에 이번에는 지역 미술계 인사가 관장으로 선임되기를 바라는 기류도 일한다. 문화계 인사 A 씨는 "이전에도 공모제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내정'을 한 상태로 외부 인사를 관장으로 선임한 측면이 있었다"며 "혹여 전문성 없는 캠프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결정된다면 시립미술관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미술계나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비엔날레 대표는 적임자 물색 중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창설 30주년을 맞아 제 15회 비엔날레 개최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그동안 지역 대표 문화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오며 세계 5대 비엔날레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점차 세계 미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명성이 퇴색하면서 위상 재정립, 콘텐츠 차별화 등 과제가 주어졌다.

전임 박양우 대표 이사 임기는 지난 12월 31일 까지였다. 정관에 따라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인 이상갑 부시장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대표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임원들을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면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현재 후임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일한다. 혹여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던 인사가 대표가 된다면 미술 전문성, 콘텐츠 구현, 세계적인 작가·기획자와의 네트워킹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뒤따른다.

지역 문화계 인사 B씨는 "비엔날레 정적의 큰 틀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선 재단 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시 트렌드에 밝고 기획력, 조직 장악력을 갖춘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비엔날레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 출판문화원 3종 도서 세종도서

### '음악은 어떻게...'·'이념과 공간'·'언어에도...' 학술부문 선정

'음악은 어떻게 통치의 기제가 되었나', '이념과 공간', '언어에도 빛이 있다면'.

전남대 출판문화원이 발간한 3종의 도서가 '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사학과 이성원 교수의 '음악은 어떻게 통치의 기제가 되었나'는 음악의 기원부터 시와 음악의 역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음악과 역사,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사회학과 김준우 교수와 지리학과 안영진 교수의 '이념과 공간'은 이념이 공간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저자들은 이념은 오래전부터 현실을 바꾸어 왔다고 본다.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한순미 교수의 '언어에도 빛이 있다면'은 한센병 계몽운동의 흐름과 그 시대가 겪은 통증을 '언어'로 들여다보았다. 다른 위



치에서 '새빛'의 언어를 꿈꾸었던 여정을 짚어보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정성택 출판문화원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은 연간 60여 권 학술도서를 출간하고 있다"며 "세종도서 지원 사업이 펼쳐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5종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믹 영화+액션 애니 '달빛걸음 무료극장' 오세요

### 토르:마법검의 전설·정직한 후보2 10·24일 동구영상미디어센터아트홀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기회가 펼쳐진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영상미디어센터 등이 '달빛걸음 무료극장'을 오는 10일, 24일 각각 오후 7시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아트홀(5층)에서 연다. 애니메이션 '토르: 마법검의 전설', 한국형 코미디 '정직한 후보' 두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먼저 10일 스크린에 걸리는 '토르: 마법검의 전설'은 황금 검을 둘러싼 소년의 모험기를 그린다. 용감한 주인공 '빅'은 아버지처럼 언젠가 바이킹이 되어 원앙을 누비고 싶어 한다. 어느 날 빅의 아버지 바이킹 족장 '할바'는 라이벌로부터 '마법의 검'을 훔치고 사람들은 이를 갖고자 소동을 벌인다.

한편 마법의 힘으로 황금이 되어버린 엄마를 되돌리려 빅은 모험을 시작하고, 비밀의 땅 아스카르드로 향하던 중 영웅 로카·토르를 만나 우여곡절을 겪는다. 과연 빅은 황금 검의 비밀을 파헤치고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

아울러 90만 관객을 동원했던 '정직한 후보2'는



'토르: 마법검의 전설'

24일 스크린에 걸린다. 라미란, 김무열, 윤경호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윤두준, 나문희 등이 특별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황금촬영상에서 '활영감독이 선정한 인기상' 수상.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져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 분)은 우연히 바다에 빠진 정년을 구한 일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금의환향의 기회를 잡는다. 그러나 '정직'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로 인해 그녀는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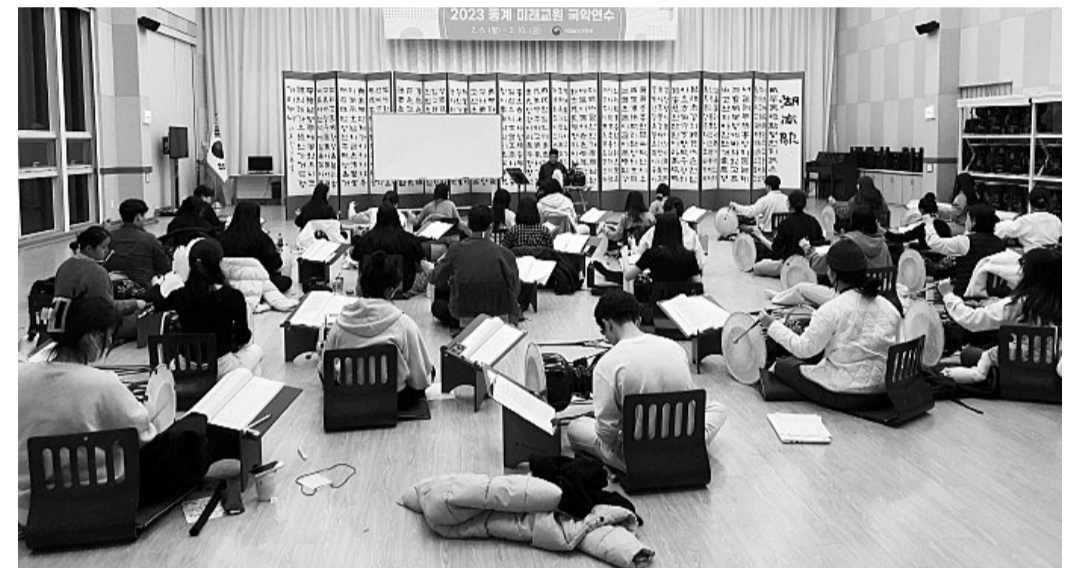


'정직한 후보2'

그 순간 '진실의 주동자'가 운명처럼 그녀를 찾아오면서 유쾌, 상쾌, 통쾌한 코미디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새해 달빛걸음 무료극장 첫 기획으로 유쾌한 코미디와 액션이 깃든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며 "예술영화부터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품까지, 올 한해에도 센터는 다양한 작품들로 시민을 만날 계획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동계 미래교원 국악연수 진행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예비교원·학생에 '미래교원 국악연수'

### 국립남도국악원, 다음달 10일~14일 국악 특강·장구 반주법 등

교내 국악교육 현장과 연계해 교수 지도능력을 제고하는 '국악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은 예비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2025 동계 미래교원 국악연수'를 2월 10일~14일(4박 5일 합숙) 국악원 연수관 등에서 진행한다. 8일부터 17일까지 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선발할 예정.

전국 음악교육과, 음악교육과를 비롯해 교육대학교 대학생·대학원생(및 졸업생)으로 교사를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타 음악 관련 학과(음악과, 국악과 등)일 경우 교직 이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1일 차 국악기를 설명하는 '국악 특강'을 시작으로 2일 차에는 '장구 반주법', '경서도민요' 등을

배운다. 교과서에 수록된 경기 서도와 동부, 제주 민요의 가장법을 습득하는 시간이다.

3일 차는 '사물 장구', '단소' (악기 개별준비) 강의가 열리며 '판소리'와 '남도민요' 등을 익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진도 일원을 둘러보는 '문화탐방'도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4일 차 해설과 함께하는 '공연 관람', '개인 연습', 5일 차 '사물 장구'로 이어진다.

국악원 장악과 선년이는 "미래 국악 선생님을 꿈꾸는 예비 교원들을 위해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단순 강의뿐 아니라 문화탐방과 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참가비 6만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방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